

## ‘삼고초려’ 한전공대 특별법 법안심의 논의 연기

22일로 순연...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소위 문턱 못넘어

마지막 안전 상정일 25일까지 불발시 내년 개교 물건너가

여당이 삼고초려 중인 한전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국회 특별법 안전 심의 논의가 해당 상임위 일정을 이유로 차주로 연기됐다.

18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된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법률안 심의 논의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순연되면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애타운 기대가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2월내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2년 3월 정상개교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것은 학교법인 한전공대가 특수법인 전환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월 3일까지는 입학전형 발표와 함께 수시모집을 진행해야 내년 3월 정상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법안 안전 심의는 오는 22일, 25일 두 차례 더 남아 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 심의 안전으로 다루질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다.

여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산자위 법안 심의를 비롯한 상임위 의사일정을 민주적 협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한전공대 특별법'도

최소 3회 이상은 해당 소위원회 법안 심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예정된 22일에도 특별법 안전 심의가 불발

되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안전 상정일인 오는 25일 야당과 막판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을 거듭하자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법 시도민지위위'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에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위위는 한전공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당시 울산지역 유일의 여당 의원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발의 후 22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된 사례를 들며 야당이 '호남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기동취재본부



산사 설중매(雪中梅) 지난 17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국보 사찰 무위사 마당의 홍매화가 내리는 눈과 어우러져 멋진 겨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 민주당 광주·전남 “한전공대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2022년 개교 준비 연내 마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 에너지산업 인재양성 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하 한전공대)가 2022년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개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연내에 마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당은 이어 “특별법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어 자칫 2025

년 이후로 개교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학령인구 감소, 한전의 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특별법 통과를 집요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조시 조성특별법(아특별) 등 다른 호남 관련 법안들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는 호남 동행을 외치며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의힘 의

연확장 정책이 기만적 ‘호남우롱’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도당은 끝으로 여·야 정치권에 시·도민과 당원의 이름으로 ▲한전공대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 ▲국민의힘의 한전공대특별법 반대 행위 즉각 중단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의 차질없는 개교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3개항을 촉구했다.

김민정기자

전남 재난취약시설 책임보험 가입

무안 99.3% ‘최고’

신안 38.8% ‘최저’

전남지역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율이 22개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은 1만 2810곳으로 이 중 1만932곳(85.3%)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중 무안이 가입율 9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목포 98.5%, 화순 97.6%, 영암 97.5%, 고흥 96% 순이다.

가입율이 가장 낮은 곳은 신안으로 38.8%에 그쳤고, 구례도 46.5%에 불과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 20종이다.

전남도는 오는 6월까지 재난보험 가입 관리 실태를 점검해 미가입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 광주시, ‘코로나19

## 백신 운송’ 모의훈련

오늘 북구보건소에서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광주에서 수송과 보관 과정을 점검하는 모의훈련이 실시된다.

1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질병청 주관으로 ‘백신 수송·보관 통합 모의훈련’이 펼쳐지는 가운데 광주는 북구보건소에서 훈련이 진행된다. 광주지역 훈련 참여기관은 31사단과 광주경찰청, 백신수송업체, 광주시 감염병 관리과 직원 등이다.

백신 수송 광주훈련은 백신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가 경기도에서 백신을 수령해 광주에 도착한 순간부터 진행된다.

북구보건소 뒷편에 백신운송 차량이 정차하면 군과 경찰·방역기관이 합동으로 수량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냉동고에 보관하는 과정이 공개된다.

기동취재본부

토요일은 쉽다 홈페이지 i-honam.com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